

1957년부터 1959년까지 한국공예시범소(KHDC)의 활동과 성과

The Activities and Accomplishments of the KHDC from 1957 to 1959

주저자 : 김종균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Kim,jong-k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서 론

2. SSM, Arkon Office 와 한국공예시범소

- 2-1. Arkon Office 활동
- 2-2. 한국공예시범소의 설립
- 2-3. 한국공예시범소의 기능

3.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

- 3-1. 수공예 프로젝트와 경공업 프로젝트
- 3-2. 수공예/경공업 제품 전시
- 3-3. 현지연구답사와 수공예/경공업조사 및 지원
- 3-4. 교육 프로그램
- 3-5. 언론의 보도내용

4. 한국공예시범소의 성과

- 4-1. 수공예 프로젝트 성과
- 4-2. 경공업 프로젝트 성과
- 4-3. 개발 성과와 수출

5. 결 론

참고문헌

(要約)

1957년에 미국의 지원 하에, 미국인에 의해서 한국에 설립되어 3년간 운영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진흥기관인 '한국공예시범소'의 행적을 살펴본다. 1장에서는 미국 Smith, Scherr & McDermott Industrial design, Arkon Office의 한국지원 활동내용을 연대기순으로 개괄하고, 2장에서는 한국내 KHDC의 설립, 과정과 구성, 기능을 살펴본다. 3장은 KHDC의 활동내용을 살펴본다. 수공예 프로젝트와 경공업 프로젝트, 전시, 현지답사 연구와 현지산업 지원활동, 교육 프로그램,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한국 내에서 행했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4장에서는 공예시범소의 활동성과를 살펴본다. 수공예 프로젝트와 경공업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뤄낸 성과들과 개발된 상품들,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의 성과를 살펴보고, 5장에서는 제 활동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주제어)

한국 국내 시범소, ICA, 아르코오피스, 수공예 프로젝트

(Abstract)

It is a general survey and evaluation on the works of short lived 'KHDC', the first design promotion institution established in Korea in 1957 by Americans and supported by the US government. The chapter 1 summarizes the achievements of Arkon Office in the USA. Chapter 2 introduces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KHDC. In Chapter 3, the KHDC's activities are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on specific contents of handicrafts projects, light industry projects, exhibitions, field trips, local industry support activities, education programs, and press releases, etc. in Korea. In Chapter 4, KHDC's general accomplishments as well as the results and products developed by handicraft projects and light industry projects are examined. In chapter 5, the results and influences to Korean design development are examined and evaluated.

(Keywords)

ICA, Arkon Office, SSM, KHDC, Handicraft project, Light industry project, Field Trip, Traveling Program Exhibition.

1. 서론

한국사회에 현대적 개념의 산업디자인 분야가 소개, 도입된 지 60년가량 되었다. 그간 전후 혼란기와 개발독재기를 거치며 급작스럽게 정책적으로 육성된 디자인분야는 급변하는 경제와 세계조류에 발맞추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왔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 불과 60년 남짓한 한국디자인사는 역사적 정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1950년대 처음 미국을 통해 현대디자인이 도입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본 연구는 해방이후 한국사회에 현대적 개념의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의 스미스 셔 맥도모트사(Smith, Scherr & McDermott Industrial design: SSM)와 그들이 한국내에 설치했던 한국공예시범소(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KHDC)의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디자인 진흥 활동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한국디자인사의 역사적 계보를 찾아나가는 작업이며, 오늘날 한국의 현대디자인을 깊이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글의 진행에 있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자료들의 자의적 가공을 최대한 피하고 원문을 인용하였으며, 인용문은 고딕체로 표기하였다. 한국디자인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SSM, Arkon Office의 활동과 한국공예시범소

2-1. Arkon Office 활동

1955년, 산업화가 저조한 후진국을 위한 기술원조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미국무성 산하의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dministration: 국제협조처)는 미국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내국에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위임했다.¹⁾ 러셀 라이트사는 홍콩, 대만, 태국, 베트남, 콜롬비아를 담당했으며 월터 도인 티그사는 그리스, 요르단, 레바논을, 데이브 체프맨 사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수리남,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를 담당했다. 그리고 SSM사는 한국 한곳만을 담당했다.

SSM사의 본사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아크론(Arkon) 시에 사무소가 있었다. ICA의 위탁을 받은 Arkon office는 한국내 수공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디자이너를 파견하여 한국공예시범소(KHDC)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한국제품의 미국내 판촉과 한국학생들의 미국 수학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한국디자인 진흥 프로젝트를 맡았던 곳이다. 제일 먼저 한국내 수공산업을 조사했던 사람은 SSM사의 파트너인 '사무엘 셔'로 3개월 동안 서울, 부산, 통영, 강릉등 주요 도시들을 방문, 수공산업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한국 수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적 제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보고서를 1955년 11월에 작성하였다. 그러나 한국내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원계획은 보류되었다가, 57년 8월에서야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되었다.²⁾

1) ICA는 50년대, 원조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에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농학, 공학, 의학분야를 중심으로 미네소타 대학의 담당 하에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계획으로 건축과 김정수, 윤정섭, 김희섭의 유학이 이루어졌고, 서울대 사범대 내에 과학관과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안창모. 한국현대건축50년. P68 참고)

다음의 연표는 1957~59사이에 SSM사의 Arkon office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연표이다.³⁾

1957	
8.2	워싱턴D.C와 계약 서명
10.6	뉴욕 경유 최초물품 선적
1958	
1.9-10	SSM/K 프로젝트 멤버를 위한 ICA/W 오리엔테이션
1.16	뉴욕 경유 두번째 상품화를 선적. 시장오리엔테이션을 위한 SSM 프로젝트팀, 한국무역센터와 함께 뉴욕도착
1.20	SSM/K 프로젝트 팀 뉴욕으로 출발
1.21	SSM/K 프로젝트 팀 시장조사 착수
1.24	SSM/K 프로젝트 팀 일본 수공예조사
1.7	SSM/K 프로젝트 팀 한국 서울 도착
2.5-20	서울, 대구, 부산, 통영, 제주도 수공예 현장조사 착수
2.25	기초 교육프로그램 계약
2.26	한국정부, 임시 시범소 장소 제시
3.10	첫 도자 프로그램 착수
3.12	홍익대학교 교육 프로그램 합의
3.17	서울대학교 교육 프로그램 합의
3.18	대한공예협회 회원 미팅, 프로그램 계약 승인 및 실행
3.21	첫 황동디자인 프로그램 실행
3.24	O.E.C, 상공부 장관, 한국 수공예 협회, 그리고 SSM 프로그램 미팅
4.2	대한공예협회와 임시 사무실 개소
4.9	첫 정직원 고용
4.22	홍익대학교 강의 시작
4.24	첫 보석, 섬유 디자인 프로그램 시행
4.29	한국, 공예시범소 장소 승인
5.7-17	뉴욕무역박람회와 한국무역센터와 함께 Arkon office 참여
5.26	공예시범소, 사무실 지역으로 이동
6.6	디자인스튜디오 참여업체 프로그램 착수
6.18	첫 번째 오디오 비주얼 트레이닝 지원 프로그램
6.30	대한공예협회와 한국공예수출협회, 안정적인 공정수출거래 가격 협의
7.1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첫 번째 학기 교육 프로그램 완료
7.2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첫 번째 학기 교육 프로그램 완료
8.5	뉴욕 한국무역센터 및 한국 수공예수출 협회 대표 콘솔 회의 및 미팅
8.8	뉴욕 기프트쇼에 출품하기 위한 아이템 선별 선적
8.12	O.E.C의 Mr. Ford와 Mr. Scott Emerson과 M.C.I의 장관인 민병희, 뉴욕의 콘솔 최용진의 조인된 미팅, 공예시범소 서울 스태프의 문제점과 미래 프로그램 리뷰(판매, 품질관리, 가격책정)
8.13	다섯 기관의 교차 레퍼런스(제조업체, 수출업체, KHDC, Arkon office, 그리고 한국무역센터)
8.18-9.1	도자와 칠기, 족제품을 위한 피스틱의 부산지역 현장답사
8.21	뉴욕의 한국무역센터로부터 뉴욕 기프트 쇼 참여용 샘플 주문 접수 / 이 기간동안 Arkon office는 뉴욕에서 시장과 교역 계약 상사를 위한 지원
9.10	부산, 밀양, 울산, 담양, 통영의 현장조사 완료. 광범위한 도자분야에 디자인과 기술적 작업, 대나무와 칠기 분야에는 디자인 조언.
9.15	홍익대학교, 서울 대학교에서의 수업 시작
10.14	1958년 7.1-9.30. 기간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카운터파트의 기금 발송 / 지역 구매자 계약을 통해, 베틀 목화 커버장식의 섬유프로젝트 확정.
10.22-23	대한공예협회의 숲 프로그램 리뷰 및 재조직
11.3	첫 번째 그룹의 참여업체, 숲 프로그램 착수
11.7	도자협회, 유리협회와 대한공예협회를 대표하는 한국 상공위 의원들이 국제 무역박람회를 위해 공예시범소 방문
11.11	중앙유리회사와 한국플라스틱예술회의 장학생들이 공예시범소의 세라믹실에서 작업시작
11.19	뉴욕 한국 무역센터에서 온 김옥 과 미팅
11.20	미 하원의원 몬타나주의 앤드슨(Anderson)의 방문. 공식파티에 상공부장관 구영서, 경제조정관 Economic Coordinator)Stellan C. Wollmar, O.E.C 자원개발 William Seymour, 미국대사관 경제부문책임자 Edward Conk참여.
11.24	모든 계약 활동 프로그램 요약 완료

2) 박암중, 한국디자인진흥30년사, p5 참조

3) Arkon Office Activity, 1959.4(추정), 내용요약

12.17	스웨덴과 스위스 중립국 관리위원회 멤버 공예시범소 방문
12.18	동신 장난감 제조사의 제조를 위한 기술 조언, 현장답사
1959	
1.1	상공부 차관 공예시범소 방문
1.23	프로그램 계획 리뷰와 지역내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상공부 장관 구성서 외의 미팅
1.31	지방정부 산업의 관료수장 공예시범소 방문
2.2	상업위원회와 뉴욕, 시카고 무역박람회를 위한 미팅
2.17	미래프로그램과 전시회 개최를 위해 공예협회, O.E.C와 공예시범소 모임
2.27	서울에서 2.27~3.21 수공예와 경공업 작품 전시 개최
3.16	대구에서 3.16~21 전시개최
3.24	부산에서 3.24~26 전시개최
3.17~26	스탠리 피스틱, 대구와 부산에서 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현장답사
3.31 4.10	부산, 마산, 통영, 담양, 함양, 목포, 진주, 그리고 광주에서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또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들의 운영상태 점검, 또 전시와 관련된 잠재적인 제품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노먼 디 한(Norman R.DeHaan)현장답사.
4.1	통영에서 4.1~4 전시개최 .
4.8	광주에서 4.8~11 전시개최
4.9	실제적인 활동 관찰을 위한 Gailey 소장(Major General) 공예시범소 방문
4.14	전주에서 4.14~17 전시개최
4.21	소저너(sojourner) 클럽에서 요청한 수공예/경공업 작품 전시회, 서울 반도호텔 다이네스티룸에서 개최
4.23	공예시범소 참여업체 대상 가구, 새 소품 오픈.
4.23	HLKA(서울중앙방송)방송국 리가이딩 프로젝트를 위한 노만 디 한과의 인터뷰 (이후활동 내용 미확인)

59년 5월 이후부터 60년 5월 31일, 공예시범소가 폐소될 때까지의 Arkon office의 활동 기록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2-2. 한국공예시범소(KHDC)의 설립

한국공예시범소(KHDC: 이하 공예시범소)는 1957년 미국 ICA의 원조로 58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디자인 진흥기관이다. 공예시범소의 설립목적은 당시 산업시설이 거의 없는 한국사회에 소규모 가내 공업제품, 전통공예품에 대하여 디자인, 품질, 기능을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제에 중심의 한국사회에 산업력을 길러주어 가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좌경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 최초의 디자인진흥사업은 미국인에 의해 종합적인 산업진흥책으로 시작됐다.

58년 1월, ICA 한국 담당회사인 SSM사는 한국의 수공산업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수공예산업과 소규모 가내공업을 육성하려는 원조계획을 세우고, 미국인 사무엘 셔를 통해 서울에 공예시범소를 개소하였다. 또 3명의 디자이너, 스탠리 피스틱(Stanley Fistic)⁴⁾, 폴 탈렌티노(Paul Talentino)⁵⁾, 오스틴 콕스(Austin Cox)⁶⁾를 한국으로 파견하였고, 공예시범소의 책임자로 미8군 사령부의 하사관으로 반도호텔⁷⁾ 개축작업 참여를 계기로 한국정부와 관계를 맺었던 미국인 노만 디

4)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산업도자 디자인 담당교수를 역임

5) 공예가, 센터내에서 교육훈련 담당

6) 금속 및 보석디자인 전문가

7) 반도호텔은 36년 해방후 미군 주둔군 사령관인 하지 중장의 사무실과 미군 고급장교의 숙소로 이용, 단독정부 수립후 미대사관으로 이용, 한국전쟁후 미국으로부터 인수받아 호텔내부의 왜색을 일소하고 관광호텔로 개조, 75년 이후 롯데호텔이 들어섰다. 반도호텔 보수에는 미국산 재료와 미국디자이너가 소개되었는데, 유리강화문과 형광등, 천장재의 아크릴 조명재, 호마이카 등에 의한 공간 연출을 선보였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내 다방 내장에 호마이카가 유행이 되고, 호마이카 문화라는 말이 생겨났다.(안창모. 한국현대건축50년. p83)

한(Norman R. De Haan)⁸⁾을 임명하였다. 공예시범소는 미국무부 산하의 ICA의 기술원조기금을 바탕으로 미국 대외원조기관(USOM), 주한유엔군사령부, 주한 미 8군사령부의 원조와 상공부의 지원하에 운영되었으며 총체적인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사무엘 셔였다. 공예시범소의 설립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⁹⁾

스폰서	OEC(경제조정국: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ICA (계획번호: 89-23-293) 상공부 대한공예협회
계약자	'Smith, Scherr & McDermott' Industrial design
위치	공예시범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306번지
취지	공예인들에게 기술, 디자인 지원 생산제품을 위한 국내 및 외국 시장 발굴 지원 제품 및 비즈니스 진행에 대한 조언 위 항들을 통한 개개인 공예인들의 수입증대

2-3. 한국공예시범소의 기능

한국공예시범소는 디자인 전반의 산업적 지원과 교육, 계몽활동 등 전방위적인 디자인 진흥사업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예시범소 사무실의 구성과 활동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¹⁰⁾ 시범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예시범소(KHDC) 구성	
디자인실	· 스태프들과 참여자(업체)가 협력하여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제작실	· 교육을 위한 굿디자인 샘플 생산 · 전통적 재료, 소재의 새로운 사용법 탐색
도자기실	·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도자 재료의 테스트 · 교육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샘플생산 · 제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 개발
금은세공실	· 제품판매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공예가에게 훈련 · 판매개선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개발
진열실(전시실)	· 개발된 제품이나, 공예시범소 선정품의 영구전시공간 · 수출잠재력을 가진 제품을 모아 전시할 장소를 제공 · 한국내 공예가가 하는 작업을 전시
한국공예시범소(KHDC) 기능	
교육	· 공예 및 공업디자인 교육과정 수립 ·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내 2년 과정 프로그램 · 제품 수출증진을 위한 디자이너/공예가 굿디자인교육훈련
도서 및 출판	· 연구조사를 위한 수출자료와 디자인 잡지 참고자료실 · 한국공예협회를 통한 중요정보 배포 · 한국내 출판에 정보제공
판로개척 및 선전	· 국내 마케팅 활성화 · 미국사무실을 통한 수출 마케팅과 프로모션 개발 · 한국제품 평가와 유력한 바이어에게 샘플 발송 · 잡지나 뉴스매체로 한국 공예의 선전
전시	·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관련 지원 및 조언. · 한국내 공예가들에게 굿디자인과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위한 지방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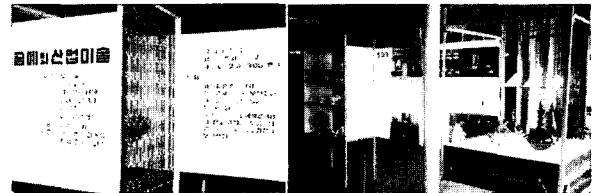


그림 1 전시실 모습

8) 57년 IIT 건축과 중퇴.

9) Arkon Office Activity, 1959.4(추정), 내용요약

10) KHDC의 설치동기가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이 공예와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아는 바가 없으니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고, 상공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http://www.designdb.com/history/06_map/map.html#c_1_1_1참조)

3.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

공예시범소는 미국, ICA와 한국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노만 디 한'을 소장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취약한 한국의 산업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선별하여 외국시장(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신디자이너를 개발하고, 일부 선별된 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전국의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에서 생산, 품질관리, 재료 등에 관한 자문과 세미나 개최, 신제품 개발 후 지역사업가들의 생산을 위한 투자 독려, SSM사의 뉴욕지사를 통한 가구 등의 한국 상품 머천다이징 및 마케팅, 전통공예와 관련 깊은 지역조사 및 현장 답사, 지역 공예가를 위한 참여교육 등, 디자인·공예산업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¹¹⁾

당시 수출증대에 관심이 많았던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정부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제품개발과 수출진흥에 힘썼다. 또한 대학교육, 교수요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공장 방문지도, 순회전시회를 통한 계몽사업 등 국가적 사업을 대부분 대행하였는데, 주요 활동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활동	주요내용	비고
수공예프로젝트	지역특산물·공예품 발굴/개발/수출	
경공업프로젝트	대량생산 가능품목 기술지원/수출	
연구답사	지역 특산물발굴 / 수출판로개척	
전시	디자인 계몽 / 교육	상설 및 순회전
교육	서울대, 홍익대 수업 / 공예인 교육	arkon office협력
수출	수출판로개척 / 국제기프트쇼 출품	arkon office협력



그림2 작) 공예시범소에서 새로 개발된 제품을 검사하고 있는 한국 경제조정관 Lowell Chawner 박사, 민사 국장 Gailey 소장, 공예시범소 내 SSM사의 스탠리 피스틱(Stanley Fistick), 윌리엄 웨임(William Weems), RD-ID-I, OEC, 그리고 하워드 포드(Howard Ford), RD-ID-I, OEC / 우) 두 공예시범소 연구원이 주얼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구공서 상공부 장관과 OEC, RD 하워드 포드가 지켜보고 있다. 한국에서 경제지원 프로젝트와 한국에 의한 진행을 관찰하기 위해 한국의 여행중이던 군사정부의 민사국장인 소장 Gailey 가 59년4월9일 공예시범소를 방문했다.

3-1. 수공예 프로젝트와 경공업 프로젝트

공예시범소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수공예산업들을 발굴하고 상품화시키는 수공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중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 회사와 관련된 활동은 경공업 프로젝트로 분류되었고, 공예시범소는 기술적 지원과 리서치, 실험 등을 맡아 지원하였다. 디자인 프로그램은 매달 간격으로 진행되었고, 많은 회사가 참여하였으며 기술자를 파견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제품개발 재교육을 받았다. 수공예 프로젝트는 주로 지역특산물이나 장식품들 중에서, 미국시장에 기념품이나 장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품목들을 선별, 개량하여 상품화시키는 방식이었다. 대상품목은 대나무, 놋쇠, 도자기, 자수, 섬유, 유리, 짚, 칠기, 나무, 보석등 주로 수작업을 동원하는

11) 미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판촉을 맡았던 사람은 데이비드 무라노(David Murano)였다. (박광중, 한국디자인진흥30년, p5)

품목이었다. 그중 일부 품목은 경공업프로젝트로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도자기, 자수, 유리, 담요, 장난감, 대리석 등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다시 정리한다.)

각 프로그램에는 대학에서 온 졸업반 학생 10여명과, 공예시범소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직원,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예인 및 기술자들이 포함되었다. 다음 표는 59년4월 당시 KHDC가 직접 고용했던 직원들의 명단과 작업 영역이다. 직원은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용하였으며, 작업영역은 대부분 수공예 중심이었다.

이름	작업영역	비고
권용득	도자기	한국수공예협회 지원자 공방 훈련 센터내에 직접 고용 (50년대 한글·영문표기법의 문제로 실제이름과 차이가 날수도 있다.)
조용신	인형	
한두수	왕골	
황원식	왕골	
한영혜	유리 비즈(구슬)	
김홍우	대나무	
이영우	칠기	
이동백	장난감	
이재필	대나무	
박홍선	유리 비즈(구슬)	
서기택	놋쇠(황동)	
송희순	유리 비즈(구슬)	

3-2. 수공예/경공업 제품 전시

공예시범소는 한국내에서 수행했던 수공예/경공업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예시범소내의 상설전시장에 전시하였고, 당시 월 200~400명 가량의 방문객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9년 2월부터 4월 사이에는 전국 순회전시도 가졌는데, 모두 9700명이상이 관람하였고, 지방 관청과 산업체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

기간	장소	방문객(추정치)	기타
59.02.27 ~ 03.21	서울	1,300 명	
59.03.16 ~ 03.21	대구	1,050 명	현지연구답사와 병행
59.03.24 ~ 03.26	부산	1,300 명	"
59.04.01 ~ 04.04	통영	900 명	"
59.04.08 ~ 04.11	광주	1,400 명	"
59.04.14 ~ 04.17	전주	950 명	"

순회전시회에 이어 59년 4월21일, 서울 "소저너(sojourner) 클럽"¹³⁾의 요구로 서울 반도호텔 다이너스티 룸에서 '아름다운 집'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그림3,4,5) 클럽의 회장인 존 로버츠(John A. Roberts) 부인이 사회를 보았고, 모임에는 5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전시회에는 한국에서 제작된 가구들과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꾸며졌으며, 다양한 종류의 새로 디자인된 다수의 보석, 유리제품, 등나무제품(rattanware), 비즈가방(beaded bags), 리넨(linens), 놋쇠제품, 램프받침대, 문진(Paper weights), 담배상자 등 많은 수의 아이템(200여점)을 전시하였다. 노만 디 한은 모임에서 디자인의 전통적인 배경에 대해서 강연했고, 제품 생산공장과 판매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도를 준비하여 나누어 주었다. 또 공예시범소에서 디자인하고 참여업체에서 제작된 제품들로 꾸며진 새 전시실을 열고 위탁판매도 하였다.

다음은 전시내용을 기사화한 The Korean Republic(59.4.23)의 사진이다.

12) Arkon Office Activity, 1959.4, 보고서 참조

13) 한국 거주 외국인 모임으로 추정



그림3 좌) OEC의 수공업프로젝트 디렉터인 노만디한이 전북 소재의 디자인을 설명하며, 밑짚모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 우) 한 외국인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The Korean Republic. 59.4.23사진)



그림 4 새로 개장한 전시장. 모두 한국에서 제조한 것들로 공예시범소에서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카펫 뿐만 아니라, 모든 섬유는 손으로 짠으며 모든 약세서리들은 공예시범소 참여업체에서 만들었다.



그림 5 인테리어와 관련된 모든 제품은 수공업품으로, 공예시범소에서 개발되었으며 공예시범소의 위탁판매에 합의하였다.

3-3. 현지연구답사와 수공업/경공업조사 및 지원

SSM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 전역을 답사, 산업과 수공업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미 1955년 11월에 이미 한국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수공업산업 육성에 대한 실행 계획이 짜여졌고, 한국공예시범소 설립 이후에도 58년 2월과 9월, 59년 3~4월 재차 전국적인 연구답사가 있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 지역특산품 공장과 경공업 공장에 방문해 제품디자인에 관한 기술지원과 조언을 하였고, 상품성이 있는 품목은 선별하여 한국공예시범소나 Arkon office를 통하여 수출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1959년 3월17일에서 4월10일 사이 순회전시회와 더불어 이루어졌던 현지 연구답사의 내용이다.

지역	도시	방문회사	일정 및 방문자
대구	부산	동신양행	1차답사: 1959.03.17~26 - 스텐리 피스틱
		대한도자기회사	
경남	통영	합동유리회사	2차답사: 1959.3.31~4.10 - 노만 디 한
		나사렛(Nazareth) 집	
	철기류회사		
	통영자개회사		
	철기학원		
	백동회사		
	모자회사		
	진주자개회사		
	진동리	모자와 비구니 수공품	
	마산 (취소됨)	담요회사	
진주 (취소됨)	토기장식품		
함양	나무공예품		

전북	남원	나무공예품
전남	담양	죽제품상점
	광주	-
	목포	홍남사 남산손톱깍기회사

연구답사는 1차로 1959년 3월17일부터 26일까지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구와 부산에 있는 수공예시범소와 방문하는 일정으로, 두 도시의 도자기, 유리 산업 회사들로부터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당시 연구답사의 성격을 가급적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Arkon office activity(59)' 보고서의 답사기록 내용을 최대한 번역, 인용하였다. 글 속의 '우리'는 스텐리 피스틱이며, 59년 4월 시점으로 작성되었다.

1) 현지연구답사 : 59. 3.17.~ 26. (경북 대구, 경남 부산)

① 경상북도 대구

· 동신양행: 경험 미숙으로 이제 막 후레쉬 제품의 높은 제품단가를 낮추었다. 연중 지속적으로 후레쉬 시장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장난감을 준비중이다. 생필품이면서 지속적 수출잠재력이 있는 수요를 찾기 위해, 다른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찾아야 함을 조언해주었다. 또 제품제작 전에 사전시장조사가 필요함을 이해시켰는데, 이후로는 제품제작시 가능한 시스템적인 리서치를 받아들이고, 추측성 활동은 최소화하게 될 것이다. 동신양행에서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업디자이너는 등유(kerosine) 랜턴을 개발했다. 또 선풍기의 잠재적 시장가능성을 조사했다.

② 경상남도 부산

· 대한도자기회사: 터널가마 1기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은 다른 하나를 설치중이다. 이 회사는 정찬용식기를 대량생산할 것인데 지역수요를 초과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시급히 해외 시장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장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만, 높은 제조단가와 낮은 품질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없다. 이 회사는 적극적으로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고, 미국 국제 무역박람회에 샘플을 제출을 시도했다. 두달전, 이 회사의 두 직원이 센터에 참여하여 센터 지원하에서 새로운 제품라인을 디자인했다. 새 주형(mould)들은 공장으로 옮겨져 주조되었고, 유약은 그들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되었다. 유약은 실제생산에서 안정적이지 못하였고, 결국 우리는 그들의 샘플을 미국 무역박람회 선적하지 못했다. 더 많은 유약과 기타 다른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 합동 유리회사: 제조공정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 예를 들면 용광로를 오랜시간 유지하는 방법이나 연료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법 등을 훈련시켰다. 회사 사장의 끊임없는 실험으로 독특한 '세겹유리컵'(Three glass layer tumblers)을 생산해냈다. 고품질의 컷유리도 제조중이며, 제조공정은 잘 조직되었다.

우리의 제안으로, 회사는 '오팔(Opal)'유리를 성공적으로 실험하였는데, 우리 노하우인 이 방법은 한번도 한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시도되지 않은 것이다. 이 지역 회사에 더 많은 지원과 관찰을 위한 또 다른 답방계획이 5월초에 잡혀있다.

회사는 이미 지역판매를 위한 오팔유리를 생산중에 있다.

2차 연구답사는 59년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답사는 노련 디한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여행 기록에는 '수공예활동', '경공업활동', 여행관련기록 등의 '기타', 세가지 주제로 분류되어 언급하고 있다. 또 여행중에 추가적인 계획 설정이나 보충활동도 언급하고 있다.

2) 현지연구답사 : 59. 3. 31~ 4. 10. (경상남도 부산, 통영, 진동리, 마산, 진주, 함양, 전라북도 남원, 전라남도 담양, 광주)

① 경상남도 부산

· 수공예: O.E.C의 Mr. McMannis를 만나 모든 지역활동에 대해서 토의했다. McMannis 는 지역관청 상공국의 '신성열' 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우리의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최근의 프로젝트와 활동을 검토했다. 신성열은 마산, 함양, 합천지역을 담당하기를 권했다.(이 세 지역은 여행경로에 추가되었으나, 합천과 이 지역의 grass mat¹⁴⁾조사는 홍수로 인한 도로사정으로 제외되었다.) 차후 지역 제품전시를 신성열씨와 의논하였고, 전시를 위해서 공예시범소로부터 일부 시제품을 선적하기위해 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Gabriella 자매가 운영하는 '나사렛 집'(Nazareth Home)의 Maryknoll 자매를 만났다. 미망인들을 위한 공예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과 기존의 활동을 조사하였다. 실크스크린작업과 보석공예, 축하장(Greeting card), 그리고 손으로 짜거나 수를 놓은 아이템들을 검토하였고, 식탁용 매트 샘플을 주문하였다. 나사렛 집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실크스크린과 보석에 관해 수집된 정보를 교환하였다.

· 통영 철기 회사: 한국공예협회의 부회장이기도 한 사장 김씨와 지역 조사를 하였다. 현재 작업중인 실험 아이템(가령, 쌀기식 담요상자계 같은)확인하고 제품디자인을 검토했다. 시제품을 개선했으며, 수출 잠재력이 있는 테이블탑(table top) 샘플과 트레이로 개량된 작은 테이블을 주문하였다.

소매점을 방문하여 몇가지 작은 선물박스를 선택하였고, 시제품의 디자인 개선점을 제안했다. 모든 시제품은 가격을 매기고, 검사 완료되면 촬영되고, 코드가 매겨져서 미국으로 보내져 잠재적인 바이어가 있는지 조사될 것이다.

· 경공업: 통영 자개 회사: 칠기용 지역/수입산 조개들의 거친 마감으로 인해, 사장 이씨는 전기모터로 작동하는 회전톱, 그라인더를 설비했다. 원재료 조개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였다. 미국에 '카파 조개(Kappa shell)'의 제조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프레스된 자개 슈트는 장식판에 사용된다. 그러나 현재 제한된 원재료로 이 분야의 발전이 불확실해 보인다.

② 경상남도 통영

도착하는 날이 순회전시 오픈일이었고, 대중으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 수공예: 통영 철기학원: 칠기장인 훈련학교로, 반독립적이

며 지방관청의 자원보조를 받고, 이 지역 우리의 가이드로 활동중인 김봉용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는 칠기만을 다루는 4년제 공예학교이다. 운영과 학생들의 작업물을 살펴보았는데, 높은 수준의 훌륭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첫 2년동안에는 "프리핸드(free hand)" 아트 코스를 운영하고, 주제의 배치에 좀 더 강조를 뒤야 하고, 덩어리, 부피감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딱딱한 석고상 대신 학생들을 살아있는 모델로 활용하고, 자유로운 기법을 이용하면 자가와 칠기작업에서 덩어리와 형태에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공예시범소를 통해 현재의 테이블탑과 트레이 디자인을 미국에 수출가능하도록 개량할 것을 요구하였다.

· 통영 '백동'회사: 장인 '홍도정'씨가 수공예한 '백동' 제품은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매우 아름다워서, 조금만 개량하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홍씨는 오래된 다이스(dies) 핸드셀과 패턴을 완료하였다. 전동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수공예로 제작된다. 소규모 장인그룹은 그들만의 금속괴(ingots)를 주조하고 망치로 두드려 편다. 현재는 문제가 있을때만 목포에 보내서 버핑 마감작업을 한다. (트럭을 이용하여 산을 넘어 목포로 가는데 이틀이 걸렸다.) 완성된 하드웨어 셀과 장식들은 공예시범소로 주문되었고, 이 몇 제조과정(lines)은 선택되고 수출을 위해 적당한 가격이 매겨져 미국에 보내져서 마케팅 될 것이다. 이 샘플들은 5월 하순쯤 준비될 것이다.

· 통영 모자회사: 전통 말총모자(갓) 제작자 '춘대기'씨의 특별 고급 모델은 가장자리가 대나무로 짜여졌고, 실크만큼이나 훌륭하다. 놀라운 장인정신과 기술로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여름용 두건이 모자(갓)와 함께 사용된다. 대나무나 비즈로 우아한 '룸 디바이더'타입의 비즈 커튼(발)을 만들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40~50센트)

· 기타: 통영은 많은 섬과 사찰이 있는 바다에 위치하고, 꽃나무와 관목수가 인상적인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이상적인 관광센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현지에서 디자인되고 핸드 프린팅된 낚시 깃발은 화려하고 값싼 좋은 기념품이 될 수 있다. 또 이 지역 16세기 유명한 해군영웅 이충무공의 성지에는 그의 진본 철인(iron seal)도 있는데, 이것을 종이에 잉크로 찍어서 우편엽서 사이즈로 제작하면, 액자에 넣어 기념품으로, 혹은 수집가들의 아이টে으로 좋을 것이다. 충무공이 일본해군을 물리쳤던 유명한 역사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재현함으로써 도시를 발전시키는 계획을 진행중에 있다.

③ 경상남도 진동리

· 수공예: 통영 옆 작은 마을로, 수출 가치를 가진 예쁜 바구니와 크고 독특한 모자를 만들고 있다. 이 제품들의 샘플은 견적을 위해 미국으로 보내졌다.

④ 경상남도 마산

· 경공업: 담요생산업자를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공장이 파산나, 지역의 요구로 계획은 취소됐다.

⑤ 경상남도 진주

· 수공예: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지만, 사찰지붕 입상 테라코타를 제조하는 가마를 설치하기 위해 향후 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아이টে은 매우 장식적인 가치가 높고,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쉽게 수출할 수 있다. 홍수로 이번 여행은 불가

14) 명석으로 추정(연구자 주)

능했다.

⑥ 경상남도 함양

· **수공예:** 공휴일임에도(식목일), 지역관청 사무소에서 몇몇 목공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 도시로부터 2마일 서쪽으로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키보다 큰 물레방아로 도는 간단한 구조의 선반(lathes)이 있다. 이 마을은 또한 버려진 제품들로부터 종이도 생산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근면했고, 독창적이었으며, 재능이 있었다. 현재 나무그릇은 조약하게 착색, 칠가되었고 마감은 초라하다. 완성된 모든 세트제품은 공예시범소로 주문하였고, 칠가와 오일 마감에 대한 실험이 수행될 것이다. 일부 샘플 제품들은 '현장에서' 요구에 따라서 개선되었다. '백달'은 나무를 유용하게 하는 것으로 나무 샐러드 그릇, 치즈접시, 트레이 등을 만드는데 이상적이다. 제품은 지역의 종이로 포장되어서, 부산을 통해서 곧바로 수출될 수 있다. 운송수단은 열악하다. 샘플이나 제품의 가격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면, 지역적으로 품질 관리가 정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⑦ 전라북도 남원

· **수공예:** 이 도시도 나무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의 원동력은 발로 밟는 폐달식 선반(로구로)인데, 함양의 선반에 비하면 덜 경제적이고 정확성도 떨어진다. 그러나 보다 나은 운송시설이 두 지역의 비용을 같게 만든다. 함양에 언급하였듯이 그곳에는 이들 제품의 부분적인 개량만으로도 시장성이 있다. '이정순'씨와 신중리의 '함'씨, 두 공장이 접촉하였다. 원목외형에 내면이 칠가된 스프/디저트접시 라인뿐만 아니라, 외관에만 칠가된 차별되는 형태의 샐러드그릇 시리즈를 디자인 할 계획을 세웠다. 시제품은 5월말경 나올 것이다.

· **기타:** 가까운 곳의 '화원사' 절에는 많은 돌, 금속 부조가 있는데 이것으로 잘 팔릴만한 기념품 탁본을 만들 수 있다. 남원은 이미 국립관광센터가 있고, 훌륭한 호텔도 있다.

⑧ 전라남도 담양

· **수공예:** **대동공예산업회사:** 최근 공예시범소에 참여하고 있는 김홍우의 대나무공예품 상점을 방문하였다. 요구했던 개량샘플은 이미 제품화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대나무 장식용화분(Planter) 생산라인에 추가되어 시카고 무역박람회로 보내질 것이다. 다음 담양 여행은 김씨와 함께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역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 중 적절한 가격책정과 품질관리만 한다면, 수출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지적해줄 것이다. 많은 양의 아이টে를 포장, 운반하기에는 항공운임이 너무 비싸서, 공예시범소의 다른 참여자인 '한국수출포장회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 미국 시장평가를 위해서 이 지역의 전통 죽제품 중 수출잠재력을 가진 제품 샘플을 촬영하였다.

⑨ 전라남도 광주

공예시범소 전시 오프닝은 전라남도 도지사과 공동 진행되었고, 무역진흥센터 관리와 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결과로 호남전자(후레쉬 배터리 생산)와 대구 동신공업사(후레쉬 생산)가 서로 협력없이 시장수요가 부족하므로, 상호 연결하기로 했다. 또 무역진흥센터에서의 제품 전시에 기초를 두고, 목포를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15) Mr Lee, Chung soon으로 표기되어 있음.

⑩ 전라남도 목포

· **경공업:** **홍남사 도자기회사:** 사장 김씨를 만나, 5월에 도자기술사 '피스틱'의 공장 방문계획이 잡았다. 본차이나 컵과 컵받침대(saucer)를 공예시범소로 주문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일한 본차이나로, 그대로 수출하기에는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현재의 컵에 주조 황동받침대를 더하거나, 칠가된 나무컵에 현재의 컵받침대를 더한다면 수공예 선물용품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적으로 현재의 생산라인에서 수출용 차/오찬세트를 개발할 수도 있도록 디자인을 공예시범소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이다. 공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은 여름 중순까지 일정을 잡을수 없다.

3-4. 대학교육 프로그램

한국공예시범소는 일반업체의 공예가를 위해 2~3개월 단 기코스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2년과정의 산업디자인 강의와 실습을 시작하였다. 59년 1학기에는 홍익대학교 4학년과정에 '고급 3차원디자인(스튜디오과목)'과 '마케팅', '엔지니어링', '드로잉', '투시도법'과 '경제학'을 개설하였고, 서울대학교 4학년과정에서는 '교육평가', '고급 스튜디오', '레터링', 그리고 '무대설치' 과목을 개설하였다.¹⁶⁾ 또한 홍익대에서는 피스틱(Fistic)이 도예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때에 수강한 학생은 김익영, 원대정, 김석환, 정담순 등이었다. 그러나 가마를 비롯한 도예의 기본시설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예시범소의 시설에 의지하여 수업이 이루어졌다. 주로 물레성형과 석고틀을 이용한 산업도자제품을 만들었다.

또한 1958년 3월 '디자인 교수요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 2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미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첫째 58년에는 서울대에서 조교자격으로 민철홍이 선발되었고, 홍익대에서는 조소전공의 김정숙이 선발되어, 미국 ICA의 지원으로 유학을 갔다. 민철홍은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제품디자인 전공하였고, 귀국 이후 서울대교수로 재직하였다. 김정숙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산업도안과에서 공예를 연구하고, 귀국후 홍익대에서 조소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후 59년부터는 '디자이너 연수 프로그램'으로 권순형¹⁷⁾, 배만실¹⁸⁾, 60년에는 이정훈¹⁹⁾, 김익영²⁰⁾ 등이 유학을 갔다.²¹⁾ 이외에도 공예시범소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변영성, 정정희, 원대정 등이 유학을 갔다. 변영성은 클리블랜드대학에서 목공예를, 정정희(조소)는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에서 섬유미술(Fiber Art)을, 원대정(도예)은 뉴욕 알프레드 요업대학원을 졸업했다.²²⁾ 미국 수학 후 귀국한 이들이 대거 교수진으로 활동함에 따라 기존 일제시대의 방법론을 벗어나 미국식 교육제도와 디자인방법론이 교육계에 정착되어 나가는 계기가

16) KHDC의 59년 1학기 대학개설과목

17) 서울대,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에 그래픽과 제품디자인 전공, 부전공으로 도자디자인전공. 이후 서울대 교수

18) 이화여대,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에서 페브릭 전공. 이후 이대 교수

19) 공예시범소 사무직원(통역관), 이후 미아리실크회사 운영

20) 서울대뉴욕주에 있는 알프레드(Alfred) 요업대학원 졸업. 현 국민대 명예교수

21) 민철홍 인터뷰. 2006.09.27,

22) http://www.designdb.com/history/06_map/map.html#c_1_1 참조

되었다.²³⁾

일반인들을 위한 계몽교육에 있어서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General Electric)에서 제작한 필름 "What is Industrial Design?"과 포드(FORD)자동차의 "오늘과 내일의 기교(Tomorrow Meets Today)"을 대학과 일반 대중에게 상영함으로써 산업디자인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도왔다.²⁴⁾

3-5. 언론의 보도내용

공예시범소는 언론홍보에도 적극적이었고 많은 인터뷰와 기사를 제공하였다. 59년 3월 27일자 신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신문들이 유사한 내용의 공예시범소 순회 전시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는데, 동일한 언론 배포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²⁵⁾ 다음의 내용은 순회전시와 관련한 기사를 실은 신문 기사를 선별, 인용한 것이다. 공예시범소의 활동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전시상황에 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문은 한글로 고쳤으며, 표기방식은 그대로이다.

1) 한국일보 1959년 3월 27일 기사내용

"나들이 단장하는 민속공예"

- 해외 진출앞서 국내순회 전시회도

각지엔 공예시범소

- 아직도 비싼 가격, 고르지 못한 품질

우리나라의 공예품 제작가들로 하여금 외국에 제품을 많이 팔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공예품 전시회가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게 되어 첫 스타트로 이번에 대구에서 우리나라 공예품의 전분야에 걸친 제철동상향 및 견본들이 전시되어왔다. 이 전시회는 3월24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29일까지 전시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통영에서 4월1일부터 4일까지, 광주에서 4월8일부터 11일까지, 전주에서 4월14일부터 17일까지 각각 전시될 것이다. 이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공예품 제작가들로 하여금 해외시장의 엄격한 수요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돕기 위하여 전국각지에 설치된 공예시범소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동공예시범소는 미국원조자금으로 운영되고 미국의 '스미스 셔로 맥도트' 산업도안설계회사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동시범소소장 '노루마 데한²⁶⁾'씨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어떤 공예품은 외국에까지 많이 팔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가격이 보통 너무 비싸고 품질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예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범소기술자들은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미국이나 다른나라의 수용

에 적합하게끔 도안과 재료의 변경도 하게 된다.

동시범소는 또한 한국공예협회를 통해서 전국의 일류공예품제작가와 설계도안가들을 초빙하여 서울에 있는 동시범소 작업실에서 보통 2개월 동안 일하게 하고 있으며 동시에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의 유능한 산업도안전공 학생들에게 실습교육도 하고 있다. (이하 생략)

2) 국토 신문 1959.3.27 기사내용



"한국산 공예품" : 서울26일발 USIS

공예품해외수출권장 - 전국순회전시회에 관심집중

한국의 공예품 제작가들로 하여금 외국에 수출을 많이 팔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공예품전시회가 이번에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게 되어 일반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이미 한국공예품의 전분야에 걸친 제철동상향의 견본들이 전시되어 왔다. (중략)

- 새제품을 모색하는 대구공장

대구 동시범소의 제철동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 대구시 신상동에 있는 '동신'양행의 '이동택'씨는 현재 동시범소에서 석유난로, 램프 및 수출용 완구를 만들므로써 자기회사의 제품을 다양화할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이외에도 대구시민들에게 흥미있는 일은 월성동 1구에 사는 '이월수'씨가 '왕굴'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왕굴'제품은 미국 '뉴욕'과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에 출품되기 위해서 금년 삼월에 미국으로 향하게 된다. '왕굴'제품에 있어서 동시범소에서는 새 유형의 해변용 모자와 손가방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판로를 발견해냈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 아주 잘 팔린 모자의 견본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서 '디자인'을 수정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제품의 해외시장을 확보하기에는 앞으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결국 일보일보 전진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데한"씨는 말하고 있다.

- 해외수요를 검토하는 부산공장들

부산의 공장들은 동공예시범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품의 해외수출을 위해서 연구중에 있다. '협동'유리제품회사는 이미 가격경쟁에 임할수 있지만 아직도 '디자인'수정과 품질조정에 힘쓰고 있다. 이것은 특히 '캣트 그라스' 제품을 만드는데 힘든 일이다. '대한'도자기회사는 오는 5월에 '뉴욕'에서 열릴 국제박람회에 출품할 고급 정찬용식기 일절의 견본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미국도자기기술자 '스탠레이 휘스릭'씨는 동시범소에서 그들에게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이 '대한'사에서는 동시범소에 두 사람의 기술자를 보내고 있다. 그중에서 공장 감독자인 '이종식'씨는 기공과 '디자인'을 시험하고 있으며, 역시 도안가이며 제작기술자인 '김송래'는 특별히 고찰된 이 소형의 전기가마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견본을 염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대구모의

23) 박암중, 한국디자인진흥 30년사, p5 참조

24)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p12참고

25) 한국일보·'나들이 단장하는 민속공예, 해외 진출앞서 국내순회전시회도' / 서울신문·'공예품 수출위해 도안설계등 원조' / 세계일보 (59.4.26)·'한국공예품전시 전국 오개도시순회' / 연합신문·'한국공예품전시 전국5개도시순회' / 국토신문·'한국상공예품 韓國産工藝品' / 동아일보 등에 기사화되어 있지만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26) 노만 디 한(Norman R. De Haan)

생산은 공장에 따라 가마에서 해낼 것이다.

- 공예시범소에서 일하는 전라도 기술자들

전라남도 '담양'군 기술자들은 죽세공제조에 있어서 동시범소에 많이 공헌해왔다. 전라도의 유능한 기술자의 한사람인 '김홍우'씨는 죽세공품을 연구하고 있다. '김'씨는 죽세공품을 전적으로 만드는 '대동'공예산업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한 사람의 '담양'기술자가 동시범소에서 2개월간 연구 예정으로 현재 와있다. 뉴욕에서 특별주문을 받고 현재 김씨가 준비중에 있는 대바구니와 그릇받침의 견본은 금년 뉴욕국제박람회 출품할 예정이나 그 성공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대상조이다.

'대한'씨의 말에 의하면 향항(香港) 일본 및 중국의 죽세공품은 한국산 대나무보다 부드럽고 휘기 쉬운 남방산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한국의 죽세공품은 보다 염가로 팔리고 있다한다. 고로 동시범소에서는 특히 한국산 대나무에 적당한 새로운 세공품, 즉 한국산 도자기에 겸용할수 있는 주전자 받침과 같은 장식용 죽세공품을 연구중에 있다. '통영'출신의 칠기전문가이며 또한 죽세공품을 연구중인 '한도용'씨는 동시범소의 소원(所員)으로 일하고 있다.

4. KHDC의 성과

공예시범소는 실질적으로 3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4장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다음 4-1장과 4-2장은 'Arkon office activity'(59년 4월) 보고서 내용중 수공예/경공업 프로젝트의 성과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부분을 번역하여 요약, 인용한 내용이다.

4-1. 수공예 프로젝트 성과

1) 대나무: 담양에서 온 수공예가들을 통하여 대나무로 만든 타원형의 핸드백과 미국 바이어들의 요청에 따른 다섯가지 꽃병을 제작했다. 또 한국과 외국시장을 위한 두가지 타입의 장식 램프덮개를 제작했다. 두가지 테이블 시계 프레임을 제작하여 미국시장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2) 황동(놋쇠): 황동 주조를 위한 도가니가 센터내에 마련되었고, 문손잡이(Door Koncker) 샘플이 제작되어 미국 수출상 요청에 따라 보내졌다. 황동 제품 3세트가 미국 Arkon office로 보내졌으며, 황동 장식으로 만들어진 램프 베이스가 제작되었다.

3) 도자기: 센터내에서 추가적인 유약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꽃병과 재떨이가 디자인되었다. 한국 플라스틱 예술협회가 참여하였고, 대한 도자회사가 참여하여 유약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모델, 정찬식기세트 몰드와 꽃병, 재떨이가 공예시범소에서 디자인되었고 실험제작 되었다.

4) 인형: 유약을 바른 인형을 제작하였으나, 높은 온도로 인해 색상 조절에 실패하였다. 참여업체들이 몰드 시리즈를 완료하였고, 다양한 '페이퍼 마쉐 (Paper-Mache)'²⁷⁾구성이 시도되었다.

5) 자수상품: 벽걸이 장식과 액자 전시용 시제품이 제작되었고, 국내판매나 수출을 위한 전시용샘플이 제작되었다.

6) 섬유: 공예시범소에서 디자인된 수제 실크천 상품들이 제작되었다. 샘플 리넨 브로케이드(문직, brocade)가 제작되었고, 국내판매 및 수출용 망커튼이 각각 제작되었다. 수제 실크제품을 위한 패턴시리즈가 작업되었는데, 공예시범소에서 새로 디자인된 장식섬유 패턴은 '에덴의 집'에서 제작되었다. 국내주문도 생산 공급하였다.

7) 유리와 유리제품: 총주에서 온 유리비즈 공예가 3명이 참여하여 작업시간과 생산비용 단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단순한 형태의 비즈핸드백을 제작하였고, 의상재료로 쓰이는 비즈의 색상과 패턴을 통일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공예가들은 귀걸이, 목 장식품 등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유리비즈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공예시범소에서 디자인된 7가지 각기 다른 패턴의 비즈장식 핸드백이 시장 샘플로 개발되었다. 또 의상 비즈아이템 개발작업을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공예시범소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을 다른 공예가에게 가르치고, 지방의 주문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각기 지방과 센터를 오갔다. 12가지 다른 타입의 은세공 비즈귀걸이가 시제품으로 제작되었고, 대한공업사에서 제작된 2가지 다이아몬드 포인트 유리절단기 샘플이 미국 Arkon office로 보내져 시장조사를 받았다.

8) 풀(짚): 강화도에서 참여한 참여자는 두가지 다른 해변모자, 핸드백, 전등갓을 제작하였고, 또 매트와 냅킨, 도시락 세트 제작하였다. 참여자는 지역의 다른 공예가들을 가르치고 지방 주문량 공급을 위하여 지방과 공예시범소를 오갔고, 많은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공예시범소 참여업체는 런천세트의 리넨 냅킨과 어울리는 샘플 식탁용매트를 제작하였다.

9) 칠기: 주판제품의 부산물로 육각형의 공예품을 제작하였고, Arkon office에서 디자인한 커피 테이블과 몇가지 스크린을 제작하였다. 육각형 공예품은 미국 수입업자들의 샘플 요청으로 7가지 다른 색깔로 칠기되어 Arkon office로 보내졌다.

또 자개장식된 램프 베이스가 제작되어 미국 Arkon office로 보내졌으며, 캔디 박스, 카드 박스, 문진(paper weights), 편지함 등이 제작되어서 시카고 무역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내졌다.

10) 목공예품: 게임 보드가 제작되어 미국 시장 샘플로 보내졌고, 전통악기의 모형 세트가 제작되었다. 여러 가지 타입의 스크린과 커피테이블이 Arkon office에서 디자인되었다. 14가지 시제품의 그림 액자와 캔디 박스, 카드 박스와 브릿지 세트 박스가 제작되었다. 두 가지의 담배 상자가 Arkon office에서 디자인되었고, 공예시범소에서 제작되었다. 다섯가지 타입의 탁상시계 상자가 공예시범소에서 디자인되어 생산 샘플 시제품으로 완료되었다. 미국 모리슨 수입상에 의해 주문된 일곱가지 타입의 격벽(room divider)이 한일 주판회사에 의해서 제작되어 선적되었다.

11) 은과 보석: 알루미늄이 상감된 체스판과 보석이 공예시범소에서 제작되었는데 칠기마감된 검은색과 흰색의 체스용품들은 성공적이었다. 부산 보수 브로치 제조업체와 삼육 브로치 회사를 현장답사하여 보석 재료를 탐색하였고, 귀걸이 뒷부분과 핀을 제조했다. 센터로부터 한국전통 예술의 디자인과 기술적 조언이 요구되어,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다.

Arkon office에서 보내진 샘플 패턴들은 미각사로부터 보석 가공 실험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화학물질을 이용한 엔

27) 종이공예, 종이틀어붙이기

틱(antique)한 마감시범은 성공적이었다.

12) 기타: 한국 전통 깃발도안과 설명들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Arkon office로 보내졌다.

회사명	내용
보수 브로치 제작소	브로치 보석재료
보현 수공예사	칠기
중앙 여성의 집	자수
조태식	목공예
충주 인공진주협회	유리알과 인공진주
대성가구	가구
에덴의 집	장식 재료
한일 주판회사	주판
강화도 (협회)	왕골
금성 수공예사	장승(devil post), 나무인형
한국 예술,공예 수출 기구	풀, 흑석, 목재
금성 텍스타일	섬유
극동 전자	금속작업
미각사	놋쇠(황동) 기구
미아리 협회	실크
미예 자수	자수
박경혜 인형	자수와 인형
민예 수공예	자수와 나무 인형
삼육 브로치 제작소	브로치 보석 재료
뉴스타 공업사	칠기재료
유일 무역	칠기재료

공예시범소 프로그램에 따라 실질적인 샘플개발을 했던 회사명.

4-2. 경공업 프로젝트 성과

1) 도자: 공예시범소의 가이드와 협력아래, 부산의 대한 도자회사에서 새로 리디자인된 라인의 정찬식기류를 제작하였으나, 실제 생산에서 유약의 실패로 인해 미국 국제 박람회에 보내질 샘플이 선정되지 못했다. 유약 및 기술적 작업은 '대한 도자기회사'와 함께 했다.

2) 자수: 리넨(linen, 레이온)과 함께 개발되었고, 프로그램 진행 후 게스트 타월(6가지 패턴), 칵테일 냅킨(시제품), 냅킨과 테이블매트 셀(3가지 패턴)등을 생산하였다.

3) 유리와 유리제품: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 6가지 샘플이 외국으로 발송되었다. 디캔터(목이 긴병), 물병, 물주전자(pitcher), 텀블러(바닥이 평평한 큰 컵), 꽃병, 양념병 등을 생산하였다. 공예시범소의 기술적 지원하에서 서울 '중앙' 유리회사는 새로운 라인의 유리제품을 미국 국제 박람회에 보냈는데, 이 속에는 물병(jug), 물주전자, 텀블러, 와인 디캔터, 몇가지의 주스와 오일 병이 포함됐다. 또 국내시장에도 판매하였다. 공예시범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Wornow Process Paint Co.'와 접촉하여, 중앙 유리공업사에 스크린 인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했고, 내수시장에 다양한 형태로 인쇄된 병들을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

공예시범소는 부산 '협동' 유리회사에 "오팔(Opal)"유리제품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였다. 이 회사는 오팔 실험에 성공했고, 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되었다.

4) 담요(rugs):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 Carved rug, Pattern rug, Stitched rug 등, 패턴이 개발되었고 외국에 선정되었다.

5) 장난감: 프로그램 참여자가 디자인한 장난감 자동차, 열차, 커튼행거와 트랙터가 동신양행에서 작업되고 있다. 경공업 제품들에 주안점을 두고 새 프로그램은 착수되었다. 회사에서 파견된 디자이너들은 펌프식 백등유(kerosine) 랜턴과

스토브 제품개발에 주력했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수출가치가 있는 경공업 제품에 집중했다.

6) 대리석: 동양 대리석 회사가 참여하였으나, 전시용 샘플 제품을 선정하지 못하여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7) 기타: 수출 및 내수 시장을 위한 리넨제품 포장은 완료되었고, 미국으로 보내졌다. 참여업체 동신양행에서 새디자인의 일렉트릭 팬을 제작하였다. 실질적인 수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도록, 한국수출포장회사에 포장과 기술정보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회사명	제품라인
중앙 유리회사	glass light fixture / globes and informed glass table service / 악세사리
대한 도자기회사	수출용 평식기류
협동 유리회사	컷글래스(Cut glass) / 꽃병 / 접시(plates) / 재떨이 등
금강담요사	수출용 담요
금성섬유사	리넨 제품
미예자수	경기계(Light Machine) 자수품
동신양행	장난감 자전거, 자동차
한국수출포장회사	수출용 포장

경공업 프로젝트 참여회사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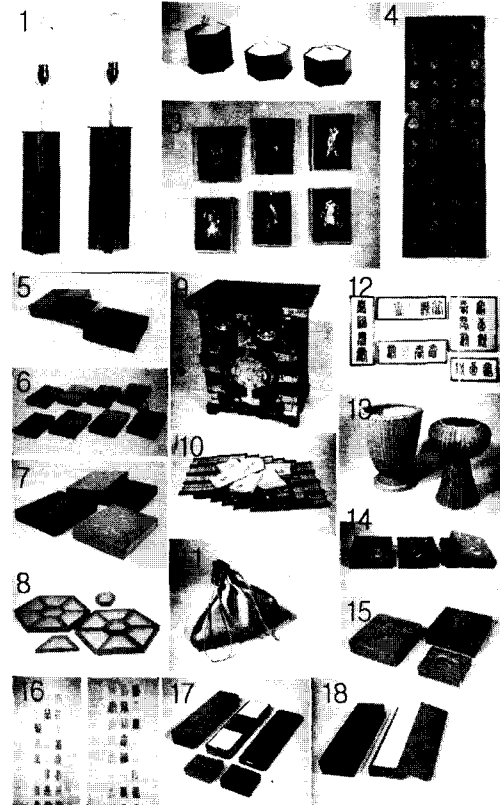


그림 6 공예시범소에서 선보인 신제품들 / 1.원목에 칠기, 황동과 칠기로 제작된 램프대 / 2.원목에 칠기마감, 은손잡이가 달린 선물상자 / 3.원목에 칠기, 자개 부조(bas-relief)로 만든 벽걸이 장식 / 4.상감 칠기된 커피 테이블탑 / 5,6,7,8.원목에 은세공 칠기마감된 선물상자 / 9.원목에 수공예놋쇠로 마감된 보석상자 / 10.왕골 식탁받침대 및 리넨 냅킨 / 11.왕골,원목,목화로 만든 비치백 / 12.자수 벽걸이장식 / 13.대나무로 만든 플랜터(화분) / 14.칠기에 자개와 달걀껍질이 상감된 메모지 상자 / 15.손으로 주조된 황동손잡이에 칠기나 오일 마감된 선물상자 / 16.자수 벽걸이 스크린 / 17,18.자개에 칠기된 은상감 선세공된 담배상자와 칠기된 재떨이

4-3. 개발 성과와 수출

1) 개발성과: 공예시범소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했던 지원자

나 회사들은 비협조적이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제품가격을 불러 탈락되지 않는 한, 공예시범소의 구성원을 이루며 제품 개발 및 디자인작업에 참여하였고, 공예시범소는 참여자들에게 제품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과 조인이 계속하였다.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결과로 (그림6)의 사진에서 보여지는 제품들이 생산되었다. 디자인한 제품들은 현대적 개념의 공업디자인보다는 거의 수공업제품들이었으며, 대부분 저가의 관광상품이거나, 기념품 약세사리, 장식품 등이었다. 형태면에 있어서는 한국전통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전통문화와는 상관없이 미국인들의 시선을 통하여 변형된 형태임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한국민들이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일상 용품이나, 공업제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ICA의 정책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ICA는 미국문화의 강요에서 비롯되는 대상국의 문화적 위협감을 염려하여, 미국에서 파견된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은 소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²⁸⁾ 공예시범소 내에는 미국인이 4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생산된 제품으로 미루어 보아 공예시범소 내의 연구활동은 미국인과의 협업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교육과 계몽의 관계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국제박람회와 수출관로 개척: SSM, Arkon office와 공예시범소 활동의 결과로 1959년 뉴욕에서 개최된 제3회 세계무역박람회(World Trade Fair)에서 한국관이 호평을 받았고, 텍사스주 델라스에서 열린 국제무역박람회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으며, 1960년 시카고 국제무역박람회에서는 미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National Society of Interior Designer)로부터도 인기상을 받았다고 한다.²⁹⁾ 또한 3년여 기간동안 모두 2,700여점의 시제품이 제작되었고, 1,246가지 샘플이 미국과 유럽에 소개되어 1960년에는 총 60만달러, 1961년에는 75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다고 한다.³⁰⁾

5. 결론

한국공예시범소는 1957년 개소하여 60년 1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으로 이관되었다. 실습용 기자재와 비품, 공예샘플들이 양도되어 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속실습장의 전신이 되었고, 60년 5월31일 한국정부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폐소되었다. 이후 60년 4.19, 61년 5.16 등의 혼란한 상황으로 디자인진흥활동은 중단되었고,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은 이후의 한국내 디자인진흥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1회적 활동으로 그치고 말았다.³¹⁾ 한국공예시범소의 활동상황을 정리해보면, 공장 방문지도, 공예인 재교육, 신상품개발, 순회전시, 수출관로개척, 대학교육, 교수요원 육성 등의 디자인 진흥프로젝트를 수행, 준국가기관의 역할을 대행하였다.

공예시범소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하자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분리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당시 취약했던 한국의 산업구

조에 맞추어 전통공예와 경공업 제품부분에 디자인과 기술 지원, 마케팅, 판촉 등에 관한 계몽과 교육에 힘썼고, 이를 통하여 영세기업들로 하여금 공예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이다. 표준화와 기술개선, 비용감축 등을 통한 대량생산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산업디자인의 발전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또 이를 통해 침체된 한국공예에 일시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부분적이거나 산업적 발전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공예품을 미국사회에 소개하는데 노력하였고, '교수요원양성 프로그램'과 '디자이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당시 세계적인 수준의 미국식 공예·디자인 교육시스템이 한국내에 전파시키고,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ICA의 지원 및 SSM의 한국내 활동은 수공업 프로젝트 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당시 한국사회내 팽배해 있던 근대화에 대한 열망과 선진기술로서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욕구를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였다. 경공업 프로젝트는 그 품목이 제한적이었고 기존의 한국내 제품을 개선하거나 개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새로운 제품이나 디자인은 소개하지 않았고, 50년대 미국내 발달된 공업디자인 영역이 공예시범소의 활동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전파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공업 진흥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작업들이 미국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이국적 취향(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 집중되었다. 미국수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은 미군정기 특수에 힘입어 일시적인 수요를 일으켰으나, 지방특산물, 관광기념품이라는 명목으로 질이 떨어지는 각종 공예품들이 성행시켰고, 한국사회의 전통공예전통의 회복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수공업 분야에 미친 타자의 시선은 내부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켰다. 표준화, 대량생산, 비용절감을 위한 일련의 활동은 전통공예의 질을 떨어트렸고, 전통적 소재를 관광상품화하는 경향으로 고착, 현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출목적으로 양산된 서구식 가구류나 인테리어용품들은 당시 시대 분위기에 힘입어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인기가 높았고, 서구풍의 인테리어를 유행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김종균. 「한국현대디자인의 문화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2.
 정경원.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박암중. 「한국디자인진흥 30년사」. KIDP. 2002.9.
 박암중. 「한국디자인 100년사를 시작하며」. 월간디자인. 1995.8.
 —. 「Arkon Office Activity」 (활동상황 보고서). 1959.4
 “한국산 공예품”. 「국토신문」. 1959.3.27.
 “나들이 단장하는 민속공예”. 「한국일보」, 1959.3.27.
 “DeHaan Addresses Sojourner”. 「The Korean Republic(영자신문)」, 1959.4.23.
 “나들이 丹粧하는 民俗工藝”. 「한국일보」, 1959.3.27.
 “韓國工藝品/工藝品海外輸出勸獎”. 「국토일보」. 1959.3.27
 www.designdb.com/history/06_map/map.html#c_1_1_1

28) 박암중. 한국디자인진흥30년사, p5 참조

29) 정경원.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p13

30) 당시 우리나라 총수출고가 4천달러 내외였다고 한다. (박암중. 한국디자인진흥30년사. p7 참조)

31) 이수연 인터뷰, 2006.10.9.